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김 경 일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언어, 문화 등에 대한 연구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지역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서 사회과학과의 결합을 통하여 대학과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지역연구는 동시에 미국 사회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지역연구를 네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1) 1800년 무렵부터 1900년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전사기, (2) 1900년대 이후 제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1941년 무렵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형성기, (3) 1941년 이후 전쟁기를 거쳐 1973년 무렵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발전기 및 (4) 1973년 무렵 이후 최근에 이르는 지역연구의 재정립기가 그것이다.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제2차 대전기에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필요라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종전 이후에는 냉전 체제 하에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 필요에서 강력한 정책적 지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시기와 분파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일정한 이론적 관심을 유지하여 왔다. 지역연구의 기반이 대학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주류 이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그것은 주류 사회과학의 이론들에 적응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종전 직후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통합적이고 전제적 시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국가나 기업이 당면한 정책 목표들에 종속되면서 실제적 적용과 정책적 합의를 과도하게 강조하였다. 그 결과 기존 학문분과들과 타협, 절충을 통하여 지역연구에서 지역은 연구의 주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소재의 차원에서 이해되게 되었다. 최근 이른바 지구화와 초국적 시대의 도래는 한편으로는 지역연구의 구태의연한 설명방식이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의 기반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그것이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I. 머리말

지역연구는 한 국가에서 그것이 성립,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사회와 국가의 내재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이론적·방법론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지역연구는 실천적·정책적 관심과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지역연구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작성되었음.

이론적·학문적 지향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느 한 쪽이 더욱 강조되거나 우세를 보일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실제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세계의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에서의 지역연구는 대개는 호사가나 여행가, 또는 선교사 등의 아마추어적이고 비학술적인 활동에서 기원하여, 그 지역의 역사나 언어, 문화 등에 관한 인문학적 관심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특히 제2차대전 이후 세계 각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과학과의 결합을 통하여 대규모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흔히 지역연구의 ‘전형’을 제시한 사례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연구의 이러한 미국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그것이 어떠한 동기와 의도에서 출발하였는가? 그것의 지향이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나 수단들이 강구되었는가? 이러한 지향이나 목표가 원래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가? 그리고 성패의 어느 쪽이든간에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의 영향이나 미래의 전망은 어떠한가? 나아가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간접적으로 답해야 한다. 한국에서 지역연구를 정립하는 데 미국의 사례가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미국의 지역연구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지역연구의 모델로서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본령은 그것이 대학내에 정착하면서 대학 사업의 일부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제2차대전 이후의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지역연구는 동시에 미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지역연구는 전통적 학문 분과들에 대한 대안의 제시, 분과적 접근 방식의 차이와 제도적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와 위상, 다학문체제와 보편적 사회과학의 지향, 비교적 분석과 시각의 문제, 문화적 상대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가치중립성과 실천의 문제 등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문제들과 쟁점들을 제기하여 왔기 때문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일반에서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이론적·방법적 쟁점들을 포괄하면서 지역연구적 접근과 시각은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던 것이다.¹⁾

미국의 지역연구에서 대상으로서의 ‘지역(areas)’은 처음에는 미국 내의 특정 지역(region)이나 때로는 유럽 등을 포괄하는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되었다. 1950년대 이후 지역연구가 점차 안정된 형태로 발전하면서 그것은 거의 베타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비서구문명 지역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학문적 관

1)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들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주제는 ‘미국의 지역연구와 사회과학’이라는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해명해 보려고 한다.

심보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발전해온 지역연구의 성립 배경을 반영하여 미국의 지역연구에서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에 의해 세계의 각 지역을 개념적으로 분할하고 또 구분하여 왔다.

방법의 측면에서 미국의 지역연구는 제2차대전 이후 발전의 초기에 지역연구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립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특정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독자성과 아울러 그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통한 통합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학내에서 기존 학문 분과들의 세분화와 단편화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과학의 새로운 체계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는 다른 분과들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방법이나 이론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존 사회과학 분과들의 헤게모니 체제로 흡수되고 말았다.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은 크게 보다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즉 대략적으로 보아 1800년 무렵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첫 번째의 시기와 1900년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1941년 무렵에 이르는 두 번째의 시기, 1941년 이후 전쟁기를 거쳐 1973년 무렵에 이르는 세 번째의 시기 및 마지막으로 이 시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네 번째 시기가 그것이다.²⁾

첫 번째의 시기에 미국의 지역연구는 아마추어 신사나 법률가, 의사와 같은 전문직업인들이나 전직 외교관과 상인들, 또한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에 의한 비학술적 지향과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오늘날과 같이 대학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문화된 사업은 아니었다. 대학에 기반을 둔 전문화된 사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2차대전 이후의 지

2) 시기 구분은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도 가능한데, 예컨대 두 번째 시기를 1945년의 종전까지로 볼 수 있고, 혹은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의 전쟁기를 독립된 하나의 시기로 떼어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세 번째 시기의 종점을 1960년대 후반으로 설정 할 수도 있다. 만일 제2차 대전기 미국의 지역연구가 전후 시기와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본다면 1945년의 시점이나 1940년대 전반기의 전쟁 기간이 유의미한 시기로 독립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지역연구가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두고 전략적 고려를 위한 필요에서 성립되어 이러한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후의 지역연구를 규정지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1940년대 전반의 전쟁기와 이후 시기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만일 1950, 60년대 지역연구의 가장 주요한 후원자였던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1960년대 후반, 보다 정확하게는 1968년이나 1969년이 유의미한 시기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73년의 이른바 오일 쇼크와 경제 불황의 전반적 구조의 변화가 미국의 대학과 지성계에 미쳤던 영향력을 중시한다면 시기 구분은 달리 설정될 수도 있다.

역연구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며, 또 국지적이라는 점에서 지역연구의 전사(前史)로 기록될 수 있다.

두 번째의 시기는 1900년을 전후로 한 이른바 '학술혁명(academic revolution)'의 거대한 조류와 그 결과로서 대학 제도의 출현이 미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함축에서 시작한다. 이 시기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예컨대 고대 시기나 이국적인 지역에 대한 언어나 종교, 또는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1920-30년대에 이르러 점차 대학 내의 한 부분으로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시기와 비슷하게 이 시기 지역연구의 중심은 여전히 대학 바깥의 비전문적이고 비학술적인 영역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제2차대전의 전쟁기를 거쳐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1950-60년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는다. 이미 말했듯이 앞 시기들과는 달리 이 시기에 지역연구가 대학에 기반을 둔 사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그것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전과는 달리 그것은 주변적이고 종속적 성격을 탈피하여 대학과 지성계에서 중심적이고 지속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쟁의 수행을 위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목표들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지역연구는 전후 세계체제에서 미국의 해계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 국가기관과 연방정부, 민간 재단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 적어도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미국의 지역연구는 이른바 '위기'의 시기를 맞았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불경기와 베트남 전쟁의 영향, 국내 사회 문제의 심화와 저항 운동의 거센 분출, 생태적 위기와 인종 갈등과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쟁점의 등장으로 기존의 지역연구는 부정되거나 거부되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생산의 초국적(transnational) 통합과 지구화의 전반적 추세 및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구문화적 상황의 도래는 지역연구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Ⅱ. 지역연구의 전사(前史): 1800-1900년

유럽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기 아래 미국의 고등교육 체제에서 주요한 지적 원천은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하였던 유럽의 문화였다. 따라서 서구 문명의 경계를 벗어 나 는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으며, 그것 또한 자민족중심적인 협약한 시각에 의해 지배되었다. 미국 대학들에서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 한 것은 대략 1800년 이후의 시기부터였다. 세계를 문명화하고 복음화한다는 선교적 목적에서 이 시기에 설립된 대부분의 대학들은 종파적 이해관계를 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처음에는 미국의 서부에서, 나중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통한

복음주의를 전파하고자 하였다(CIU 1964: 19-20). 19세기 세계의 다른 지역에 관한 지식의 증대에는 아마추어 신사나 법률가, 의사 등의 전문인들, 전직 외교관, 또는 상인들의 역할이나 활동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해외 지역에 관한 조직된 지식의 축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선교사들을 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프로테스탄트 선교 사업은 1810년 보스턴에서 외국선교단(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이 결성된 아래 본격화되었다. 초기 지역연구에서 선교사나 성직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커던가 하는 것은 1849년부터 1863년까지 미국동양학회(American Oriental Society)의 학회 활동을 통해서, 또한 이 학회의 기관지에 발표되었던 전체 논문의 1/3이 이들에 의한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³⁾

미국에서 선교 운동은 1888년 ‘금세기 내의 세계의 복음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학생 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에서 대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분출기를 맞으면서 1910-1915년 사이에 정점에 이르렀다. 1910년 무렵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의 수는 대략 7,0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1880년대에 선교의 주력이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한 아래 그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동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도 상당수가 체류하고 있었으며 단지 러시아와 동유럽만이 이 시기 미국 선교사들의 인식 밖에 있었다(McCaughey 1984: 52-53).

이처럼 미국에서 ‘비기독교 세계’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선교 사업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고 보급하였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결국 그 파국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지성계와 종교계에서 점차 그 세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2차대전 이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지속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예컨대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 과정에서 미군 장교들은 한국에 체재하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에게 크게 의존하였으며,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에 의해 설립된 대부분의 대학 지역연구소들에서 지역연구 교수들의 상당수는 이들 선교사의 자녀들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해외 지역연구 분야의 학술 전문가들과 정부 관리들의 상당수는 이 선교사업과 관련된 가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CIU 1964: 20; Lambert 1984: 2-3).

3) 미국동양학회는 1820년대에 설립되었던 런던과 파리에서의 아시아학회에 대응하여, 1842년 John Pickering, Thomas H. Perkins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McCaughey 1984: 9-13).

이와 같이 이 시기 아마추어 신사들과 전문가들, 선교사들에 의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역연구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편에서 보면 그것은 비학술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것으로 지역연구의 '진정한' 역사가 아닌 전사(前史)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20세기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역연구만이 본격적이고 따라서 전적으로 바람직한 발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 지역연구는 다음 시기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장점들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업적으로 배타적인 대학 제도가 아닌 환경에서 추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비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사회 일반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연구자가 주장하듯이 이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연구자들보다 오히려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전달하고 또 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McCaughey 1984: 5, 22).

III. 지역연구의 형성기: 1900-1941년

190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형성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19세기 후반에 대학이 출현함으로써 야기된 변화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 지적 생활의 사회 구조는 이 시기에 이른바 '학술 혁명(academic revolution)'으로 일컬어지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쉴스(Edward Shils)는 이 시기를 "미국의 학문 질서의 제도적 구조에서 근본적인 변화"(Shils 1976: 19)가 야기된 시기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⁴⁾ 첫째는 대학 제도 자체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연구 지향적인 교수들에 대한 인식과 지위

4) McCaughey 1984: 23-24 참조. 그는 제도적 연계나 교수적 책임이 아닌 학술적 관심에 의해 우선적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학자들이 대학 내의 교수진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것은 1840-1850년대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독일 박사 학위의 국내화(domestication)를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1870년까지도 600명 이상의 미국인이 '학문의 성지(the holy land of the scholar)'로 일컬어졌던 독일에서 학위를 받았으나 1861년 예일 대학에서 처음으로 미국 박사 학위가 수여된 이후 코넬과 하바드, 존스홉킨스 대학 등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과급되었다는 것이다(McCaughey 1984: 29-30).

가 학부의 교수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들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지적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영향력과 지도력의 관점에서 볼 때 지적인 추구를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 연구자들을 대체하였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지적인 활동은 전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대학과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에 관련된 일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00년 무렵에 이르러, 그리고 1920년 무렵에 이르면 더욱 분명하게 대학들은 미국 지성계의 중심 제도로 되었다. 초기의 경쟁자들 — 사립 학회들, 도서관들, 정부 기관들, 연구 단체들, 독립적 학자들의 비공식적 연결망들 — 은 연구와 교수를 결합할 수 있는 대학의 능력에 필적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명되었다. 일단 성립되자 대학의 지배는 쉽게 유지되었다. 지적 노동이 점차 전문화됨에 따라 그것은 ‘분파들’로 분화되었으며, 학과의 형태로 주요 대학들의 핵심적 조직 단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적했듯이 미국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 세계, 특히 그것의 현대적 형태들에 대한 연구는 대학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직업적으로 포괄적이었던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은 이미 1900년 무렵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후술하듯이 해외 지역연구에서의 이러한 발전은 50년 후인 1950년대 ‘제2차 학술 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컨대 고대 중동이나 서아시아의 언어나 종교, 또는 문화에서처럼 한정적이고 제한된 주제들에 그치는 것이었으며, 그것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적 편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해외 지역연구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역사를 지난 학문 영역으로 대학에서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동아시아 연구에 대한 맹이는 이미 1900년대 초에 예일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작되었으며⁵⁾ 바로 이어서 캘리포니아 대학은 라틴 아메리카 연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였다. 1923년에 동양연구소(Oriental Institute)를 설립하였던 시카고대학은 이후 중동과 남

5) 미국에서 동아시아 연구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Kenneth Scott Latourette에 관한 상세한 사례에 관하여는 McCaughey 1984: 82-89 참조. 1921년 그가 예일 대학 교수진에 가담하기 몇 년전에 하바드와 클라크(Clark), 콜롬비아, 위스콘신, 스텐포드, 버클리 및 워싱턴 대학은 동아시아와 관련된 강좌를 제공하는 최소한 1명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예일에는 3명의 교수가 있었다.

아시아 연구에서도 중심지가 되었다. 1929년에 미시간대학은 실질적으로 극동을 의미하는 동양 문명에 관한 프로그램(Program in Oriental Civilizations)을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설치하였으며, 몇 년 후에는 라틴 아메리카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부에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30년대에 펜실베니아 대학은 나중에 남아시아연구에 관한 또하나의 주도적 센터가 될 지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노스웨스턴대학은 아프리카 연구에 실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미국 대학이 되기 위하여 자원들을 수집하였다.⁶⁾

이처럼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에 걸친 시기에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자신의 역사를 지닌 학문 영역으로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분과별로 보면 이 시기 지역연구를 주도했던 것은 역사학이었다. 1930년대에 동아시아와 남미 및 러시아 등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역사학과에 속한 교수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후 사회과학에서 지역연구를 주도했던 인류학조차도 이 시기에는 아직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콜롬비아 대학의 보아스(Franz Boas)를 예외로 한다면 인류학자들은 1930년대에 이르러 겨우 미국과 남태평양을 넘어 그들의 관심 범위를 확장하고 있었다. 정치학자들은 국제 관계론에 대한 관심을 논외로 한다면 비서구의 정치 현상들에 대한 연구에 무관심하였다.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였다. 불황과 뉴딜 경제정책의 결과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들어와 이전 시기보다 더욱 국내적 지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McCaughay 1984: 105-06). 사회학자들 역시 도시 문제나 가족, 또는 범죄와 같은 국내의 사회문제들에 사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지역은 이들의 관심권 바깥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시기 지역연구는 특정한 몇몇 분과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대학 바깥의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모두는 대학 내에서 학술적 주제들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몰두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시기 선교 사업을 통한 외국의 각 지역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고려해 본다면, 지역연구의 중심은 오히려 대학 바깥에 있었으며 대학 내에서는 아직 확실한 자리를 구축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

6) Hall 1947: 17 및 Lambert 1984: 3 참조. 미국 문명(American Civilization)과 미국 연구(American Studies), 또는 미국 지역연구(United States Region)로 일컬을 수 있는 미국 내의 여러 지역에 관한 지역연구 프로그램 또한 1930년대 중반 무렵에 1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프로그램은 이 시기에 성립하여 전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성사, 또는 문화사의 맥락에서 발전해 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관심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7) 앞에서 언급한 미국동양학회의 경우도 이러한 지향과 성격을 드러낸다. 다수의 전문 동양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학회는 비전문적 성격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

이러한 상태에서 이 시기 지역연구에 대한 지원은 개인들의 온정이나 민간 재단의 호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예컨대 버클리와 콜롬비아 대학의 중국 연구나 시카고 대학의 러시아 연구, 또는 하바드대학의 앤칭연구원 등은 개별 자선가들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1930년대에는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직접적으로는 시카고 대학의 동양연구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미국인문학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를 통하여 지역연구의 주요한 재정적 후원자가 되었다.⁸⁾ 이 시기 지역연구는 다음 시기에 보게 될 국가나 연방 정부에 의한 대대적 보조나 지원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⁹⁾

더구나 민간 차원의 이러한 지원들 중의 어느 것도 제2차대전 이전에 지역연구에 대한 추가 지원은커녕 생존조차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지는 않았다. 이 시기 지역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잡지도, 그들의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 그들은 자신의 연구 영역에 대한 해제모니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학의 사업으로서 지역연구의 성장에 대한 주요한 장애는 이 분야에서 경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 학자들의 공급 부족이라기보다는 수요의 부족에 있었던 것이다.

었다. 회원 수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아마추어 동양학자들로 이루어지는 대학 외부인이었으며, 1919년에 동양학회가 미국인문학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회들과는 달리 동양학 연구 지원이나 학술 연구 일반을 위한 로비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한 연구자는 동양학회가 비전문성을 지향하면서 아마추어적인 성격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시기 지역연구가 다른 분과들이 빠져들었던 학술적 고립(enclosure)을 반 세기 동안 연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McCaughey 1984: 48-49).

- 8) 1930년대에 미국인문학협의회와 록펠러 재단의 공동 노력으로 6개의 세계 지역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1934년부터 1942년 사이에 록펠러 재단은 모두 1백만 달러에 조금 못미치는 재정 지원을 하였다(McCaughey 1984: 133-34).
- 9)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국가적 조치들에서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예컨대 1924년 의회에서 통과된 로저스법(Rogers Act)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지역 전문가를 훈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무성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외교관들을 양성” 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국무성과 함께 록펠러재단 등의 주도하에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졌다(Lambert 1984: 3-4).

IV. 지역연구의 발전기: 1941-1973년

1941년 미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함에 따라 지역연구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지역연구는 종전의 주변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의 대학과 학술계에서 두드러지고 영속적인 자리를 굳히는데 성공하였다. 대략 30년 정도 지속되었던 이 시기는 다시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1945년의 종전에 이르는 전쟁기를 거쳐 1950년대 초반까지를 포괄하는 일종의 '이룩기' 및 그 이후부터 197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역연구가 급격하게 도약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였던 시기이다.

일본에 의한 진주만 기습 이후 국가적 동원에 의한 전시체제로의 이행은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해외 각 지역에 관한 지식과 연구의 부족과 아울러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한 연구자는 '아마도 맨하탄 계획(Manhattan Project)에 깊숙히 개입하였던 물리학을 제외한다면 전쟁에 의해 가장 극적인 영향을 받았' 던 분야로서 지역연구를 꼽았다.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사를 전공하였던 일본 연구자들은 하루아침에 '적'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 연구자들은 중요한 연합군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 북아프리카와 동부 지중해, 동남아시아 또는 태평양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갑자기 군사 작전이 전개되려는 지역에 관한 소중한 정보원이 되었다. 심지어는 전투 지역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에 있었던 중동이나 남미의 전문가들조차도 대다수의 다른 미국인들보다도 훨씬 많은 언어 능력과 낯선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되었다(McCaughey 1984: 114-15).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필요에서 이 시기 지역연구의 주도권은 군부에 있었다. 예컨대 일본에 있다가 버클리 대학과 하바드 대학으로 옮겨온 양성소처럼 세계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었던 군사적 인력 자원을 위한 해외 프로그램들은 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국 내로 이전되었다. 여기서 대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호응하여 시설과 제도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the Spanish-American War)은 한 학기 내에 끝나 버렸고 제1차대전은 대학의 학사 일정에 1년 정도의 지장을 주었지만, 제2차대전은 5년 정도 지속됨으로써 미국의 대학들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수와 연구진을 비롯한 대학 내의 인적 자원이 전쟁 수행을 위한 업무에 대대적으로 동원되었으며 군부에 의한 민간 근무와 군정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 대학들에 설치되었다.¹⁰⁾ 또한 이전 시기에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조직·운영하고 있었

던 펜실베니아나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대학들은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강화, 또는 '혁신'하도록 요청 받았다.¹¹⁾ 이와 아울러 미국 내의 대표적인 3개의 연구 협의회들 — 즉 전국연구협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미국인문학협의회, 사회과학협의회 — 은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뒤이어 이들은 스미소니안 연구소(the Smithsonian Institution)와 함께 민속지리연구실(Ethnogeographic Board)을 설립하였다. 종전 무렵 해체될 때까지 이 연구실은 개별 협의회의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을 결집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¹²⁾

이리하여 전시체제하에서 형성된 언어와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원초적 유형은 다음과 같이 자리잡게 되었다(Lambert 1984: 6; McCaughey 1984: 121).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대학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그것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분과들의 조사와 강좌를 결합시킨 통합된 언어 강습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훈련시켰다. 교수진은 그들이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 성원들이었으며, 전시 여러 기관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정규 인력에 의해 관리·통제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쟁

- 10)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군사전문훈련계획(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과 민간업무훈련학교(Civil Affairs Training School)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942년 12월 국방성과 해군성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여 이듬해인 1943년부터 실시된 전자의 프로그램은 5개의 특정 분야(수학, 물리학, 전기, 공학, 및 언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한다는 목적과 함께 전쟁의 경험을 결여한 젊은 세대들에 미칠 '군사적 및 국가적 지도력에 미칠 심각한 영향'들을 고려한 '국가적 관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실상 육군에 의해 주도되었던 이 프로그램과는 달리 후자는 비슷한 취지에서 주로 해군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1943년 6월부터 1945년 12월 사이에 군복무 중에 있던 16,307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한 특정 언어와 지역연구가로 훈련되었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이 당시 대학에 얼마만큼 설치되었는가에 관하여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따른 편차라고 생각되지만, 예컨대 전자의 군사전문훈련계획에 관하여는 종전 무렵 까지 55개가 운영되었다고 하는가 하면(McCaughey 1984: 121), 이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227개 대학에 설치되었다는 보고(Fenton 1947: v)도 있다.
- 11) 이들 대학들에서의 프로그램들이 군부의 주도에 의한 프로그램의 입안과 작성에서 하나의 모델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나아가서 이처럼 전쟁의 필요에 의해 '변형'·발전된 지역연구 프로그램은 후술하듯이 제2차대전이 끝난 이후 다시 각 대학들에서 지역연구의 모델이 되었다(CIU 1964: 27).
- 12) 이 연구실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종전 이후 세 협의회들은 세계지역연구에 관한 합동조사 위원회(Joint Exploratory Committee on World Area Research)를 조직하여 지역연구에 대한 전국 실태 조사를 기본으로 정책적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Fenton(1947) 보고서는 이 연구 실이 주관한 조사 보고서이며, Hall(1947)의 보고서 또한 이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의 수행을 위한 회소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 원조는 연방정부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다. 다른 부문에서도 그려했듯이 전쟁의 종결은 지역연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한편으로 전쟁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조직되었던 많은 지역연구 프로그램들은 거의 혼적도 없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다. 다른 한편으로 이를 프로그램을 수용하였던 대학들은 전쟁 이전의 상태와 같은 학문적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비단 지역연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전시 중의 집단적 경험으로부터 미국은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끌어 낼 수 있었다. 그것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이 한창인 1944년 시카고 대학의 젊은 외교사 학자인 존슨(Walter Johnson)은 이미 『고립에 대한 투쟁(The Battle Against Isolation)』을 출간하였으며, 이듬해인 1945년에 콜롬비아 대학 총장인 버틀러(Nicholas Murray Butler)는 “지구적 전쟁은 고립의 오류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으며 만일 지금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미국 국민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재앙으로 이끌 것”(McCaughay 1984: 122-23)이라고 경고하였다. 1947년 11월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지역연구에 관한 전국 대회에서도 대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의 대다수는 전통적 고립주의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Wagley 1948: iii).

전통적 고립주의와 이에 대한 반대라는 대외정책에 관한 미묘한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 이전과 같은 고립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명실상부한 해계모니 국가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세계체제에서 미국의 출현은 유엔과 세계은행(IBRD) 및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나중에 그것은 마샬 플랜(Marshall Plan)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거시적으로 전후 지역연구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서처럼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해계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구체적 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냉전 체제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블럭과의 체제 경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강화와 체제내 포섭을 위한 지식을 필요로 하게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블럭의 ‘적성 국가’에 대한 정치, 군사적 정보에 대한 수집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연구의 기원이 냉전의 발발과 미국 국가와 기

업 조직의 활동 범위가 광범하게 확대되었던 사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 (Palat 1996: 6)은 확실히옳았다.

이에 따라 전시 체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되었던 기존의 지역연구 프로그램이 종전과 더불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들어 갔던 상태에서 지역연구의 정립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쟁 시기의 지역연구 프로그램이 전후에 미친 영향이라는 점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것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전전과 전후의 단절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전전 프로그램이 전후에 미친 영향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면서 두 시기의 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자의 입장에서 홀(Hall 1947: 17-18)은 전후의 현대적 지역연구는 전쟁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며, 전쟁은 단지 그것을 가속화하고 집중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전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특정하게 제한된 업무들에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연구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됐다기 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웨글리(Wagley 1948: 2) 역시 전쟁이 지역연구의 발전에 일정한 자극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후 프로그램은 전시 하에 수행되었던 비상시의 프로그램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후자는 전시체제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그것과 전후 지역연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전시 하에서 점령 지역의 행정 요원을 양성하는 학생들의 훈련 경험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후 이와 유사한 계획을 대학원 과정에 설치하였던 하바드 대학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¹³⁾ 또한 가토 히로야키(加藤普章 1992: 5-6)는 미국의 지역연구는 정치적·전략적 의미에서의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출발점과 목표를 가지고 공적인 자금 원조에 의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점에서 지역연구는 강대국의 실리적 이해를 반영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13) James B. Conant 1947, *The College Curriculum, Harvard University, The President's Report*, 1946(Hall 1947: 18에서 재인용).

14) 그는 일본의 경우에도 1930년대 이후 중국연구의 창구 역할을 하는 조사부(이른바 만철조사부)가 남만주철도회사에 설치되어 중국 '진출'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떠나 학문적인 관심과 시민의 상호 이해, 나아가서 평화를 위한 지역연구가 중심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세계체제에서 일본의 위치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해제모니에 줄곧 의존해 오다가 1980년대 이후 경제대국으로의 부상 및 동구권의 몰락과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 등을 계기로 독자적인 위상을 모색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전시 체제하에서 지역연구의 역할을 평가하는 문제는 순수한 학술 활동과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이용가치라는 지역연구가 가지는 두 측면과 관련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심지어는 전전과 전후 연구의 단절성을 강조하였던 훌조차도 전시 경험의 장점들을 일정하게 평가하면서, 지역연구의 건전한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대학의 진보와 지식의 증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에 못지 않게 국가에 대한 대학의 의무로서 지역연구가 국가적 공공 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¹⁵⁾

이처럼 전전과 전후 지역연구의 상관성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지역연구의 목표 및 의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전 연구와의 연속과 계승을 강조하는 후자의 입장에서 조차도 전후 지역연구의 차별성을 일정 정도 인정하면서 새로운 정향을 모색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시기에 지역연구는 이제 확실하게 대학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전쟁 기간동안에 대학이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했던 프로그램들의 전통이 남긴 유산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국가 정책으로 고립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교육적 캠페인의 또다른 형태이기도 하였다.

전후 주요 대학들에서 채택되었던 지역연구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었다. 예를 들면 대학원 수준에서의 사례들로는 하버드 대학의 중국과 변경 지역에 대한 지역 프로그램(Harvard Regional Program on China and Peripheral Areas),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의 극동연구소(Far Eastern Institute), 미시간 대학의 일본연구소(Center for Japanese Studies), 콜롬비아 대학의 러시아연구소(Russian Institute), 벤더빌트 대학의 브라질연구소(Institute for Brazilian Studies)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46년에 훌은 전국 유수의 24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이와 비슷한 방식의 통합 지역연구 프

하고 있는 시점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지역연구가 다시 대두되게 되었던 상황을 음미해 보면, 그가 말하듯이 순수한 학문적인 관심을 유지한 지역연구가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15) 훌은 전시 경험이 남긴 긍정적 영향으로 다음의 3가지를 들었다. 즉 1)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개별적 전쟁 경험의 결과 지역적 접근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주제에 대하여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많은 사람들이 지역 및 언어 교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연구와 조사를 위한 몇몇의 새롭고 중요한 기법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많은 양의 지역 자료들이 편찬되었다. 3) 국가를 다시는 그와 같은 무방비 상태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학자들의 책임감 및 학문 분파들 사이에 협존하는 고립과 학문 활동의 국지적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자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Hall 1947: 19-20, 82).

로그램¹⁶⁾으로 13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Hall 1947: 7). 5년 후인 1951년에 벤네트는 전국 각지의 28개 대학을 대상으로 29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다(Bennett 1951: 10-11). 조사 대상의 수가 약간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5년 사이에 배가 넘는 16개 센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흔히 조사할 당시 위의 13개 프로그램은 러시아가 3개, 극동 지역이 4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6개의 분포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에 관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였다. 라틴 아메리카를 제외한다면¹⁷⁾ 일본, 소련 및 중국에 관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지역적 편향은 당시 세계적 차원에서 조성되었던 냉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5년 후에 이루어진 벤네트의 조사도 이러한 불균형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극동과 라틴 아메리카 및 러시아는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더욱 중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편향은 대학에서 연구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인 아래의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의 경우 러시아와 극동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연구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세 지역을 합한 수는 144명으로 인문학 전체 수의 거의 2/3에 이르고 있다. 사회과학 역시 인문학과 비슷하게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는데, 모두 111명으로 전체 156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약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불균형이 이들 우위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소 상쇄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에는 주목해야 한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이전 시기에는 전무하였던 (동)유럽과 근동, 아프리카, 남아시아에 관한 연구들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러시아, 동아시아, 남미와 같이 1940년대 후반에 가장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던 지역들 대신에 당시의 지역 연구

16) 통합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의 기준을 체계화하여 제시한 것은 벤네트로서, 그는 7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1) 대학의 공식적 인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2) 해당 지역에 관한 교수와 연구를 위한 적합한 도서 자료들, 3) 해당 지역의 주요 언어들에 대한 능력 있는 교습, 4) 언어 교습 이외에 적어도 5개의 적합한 주제들의 제공, 5) 지역연구의 통합을 위한 특정한 기체들, 6) 지역연구 프로그램 7) 해당 지역의 현재적 측면에 대한 강조 등이다(Bennett 1951; CIU 1964: 30).

17)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이해관계는 전쟁 기간인 1942년에 미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미국인문학협의회 및 전국연구협의회와 함께 협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Latin American Studies)를 설립하였던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종전 이전 시기의 유일한 지역위원회였던 이 조직은 1947년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표 1>

1951년 통합 지역 프로그램의 지역별 분포

지역	극동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유럽	동남 아시아	근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계
수	8	6	5	4	2	2	1	1	29

자료: Bennett 1951: 10에서 작성.

자들은 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연구와 같이 보다 뒤쳐진 지역들에 집중하였다.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기준에서 성장을 논의함으로써 지역연구의 추진자들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상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에 주목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¹⁸⁾

다음에는 이 시기 지역연구의 분과별 분포를 살펴보기로 하자. 1944년 펜튼은 민속지리연구실의 주관으로 27개의 대학을 방문하여 전시 프로그램들을 조사한 결과로 부터 각 지역에 따른 분과들의 기여도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유럽 프로그램들에서는 역사학이 행정학이나 지리학, 또는 경제학보다도 배 이상의 비율로 우세를 보였으며, 인류학이나 사회학, 언어학과 문학 등은 이들 각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극동 지역의 프로그램에서는 역사학의 강세가 사라진 대신에 언어학이나 경제학, 자연과학들 및 이보다는 덜하지만 지리학이나 정치학, 또는 인류학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양 문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에서는 인문학이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전시기에 봄을 이루었던 라틴 아메리카 연구에서는 역사학과 인류학 및 지리학이 가장 주요한 기여를 하였다(Fenton 1947: 10, 27).

앞에서 언급한 벤네트는 1951년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연구자들 533명을 조사하였는데 이중에서 중복을 피한 375명을 지역과 분과에 따라 교차시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이 표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지역 연구자 중에서 사회과학보다는 인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경우의 비율(58.4%)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연구가 초기에 문헌학이나 언어학, 역사학 등의 인문학적 지향에서 출발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Eckstein 1975: 205), 상대적인 증가 비

18) 미국에서 지역연구가 뚜렷한 하나의 조직적·제도적 구심점이 없이 진행되었으면서도 지역 배분에 대한 고려가 전체적으로 관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의도는 지역연구의 초기부터 제기되었는데, 예컨대 이에 대한 전후 최초의 보고서에서 훌륭한 세계의 모든 지역에 관한 연구를 동시에 한꺼번에 완성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 핵심적 지역부터 먼저 공략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서 극동과 러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를 들고 있다(Hall 1947: 82).

〈표 2〉

지역과 전공에 따른 연구자의 분포

지역 분과		러시아	동남 아시아	극동	남 아시아	근동	유럽	아프 리카	라틴 아메 리카	계
인 문 학	역사학	11	21	1	3	10	14		21	81
	철학	1	1				3			5
언 문 학	영어학	2	7	5	3	1	6	1		25
	문학	15	29		2	10	14		27	97
예 술		1	8		2					11
	계	30	66	6	10	21	37	1	48	219
사 회 학 과 학	정치학	15	11	4		1	5	1	9	46
	경제학	8	6	1	1	1	6	1	9	33
	사회학	2	1	2	1				4	10
	인류학	2	8	5	2	1		3	12	33
	지리학	3	8	2	1	1	3	1	8	27
	저널리즘	1							1	2
	법학	3					2			5
계		34	34	14	5	4	16	6	43	156
총 계		64	100	20	15	25	53	7	91	375

자료: Bennett 1951: 12에서 작성.

율을 보면 사회과학의 쪽이 훨씬 더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 지역연구에서 사회과학의 주도권은 여러 문헌들에서 지적되는 것으로,¹⁹⁾ 후술하듯이 1950년 무렵에 사회과학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지역연구에서 인문학을 압도하게 된다(다음 장의 〈표 4〉 참조).

다음에 인문학에서는 문학과 역사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정치학이 가장 많은 비중(29.5%)을 차지하며, 다음이 경제학과 인류학의 33명으로 20% 가 약간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회학은 10명(6.4%)으로 미미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었다. 분과들의 분포를 이전 시기인 양 대전 사이와 비교해 보면, 특히 사회과학에서

19) Hall 1947: 49-50; Fenton 1947: 23; Wood 1968: 404-05 참조. 특히 홀은 완벽한 지역연구를 위해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사회과학이 나머지 두 과학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과학은 지역연구의 핵심을 이루며, 지역연구의 본질적 통일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과 인류학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지역연구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분파로는 심리학과 경제학이 흔히 거론되는데(Wagley 1948: 51), 적어도 이 자료에 의하면 경제학은 다소 예외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자연과학적 모델을 추구하는 데 사로 잡혀 있었던 심리학이나 사회학, 경제학 등은 지역연구에서 낮게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대학에 설립된 프로그램들의 조직적 형식은 매우 다양하였다. 한편에서 그것은 위원회 구조의 매우 느슨한 형태로부터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소나 센터의 형식을 띤 완전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쟁 이전 시기에 대량 훈련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이 시기에는 연구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도 말했듯이 지역연구는 전적으로 대학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들이 분과들과 맷는 관계 역시 이들 프로그램들이 조직된 형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연구소를 통한 지역연구의 제도화가 확실한 기반을 잡은 대학에서 지역연구는 일종의 분파로 여겨졌으며, 이에 참여하는 지역 연구자들 역시 지역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이 분파의 그것을 압도하기 쉬웠다. 반대로 느슨하게 연결된 프로그램의 형태에서는 분파에 대한 소속감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에 앞서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역연구가 일종의 분파로서 추구되었던 초기 단계에서는 취업의 고려로 인해 지역 기반의 학위 취득은 실제로 제약을 받았지만, 지역연구를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박사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의 학위가 가능하다는 공동의 전제가 있었다.²¹⁾

또한 미국에서 지역연구 프로그램들은 거의 전적으로 현대를 시대적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벤내트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통합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로서 ‘현재적 측면에 대한 강조’를 들었고, 미국의 지역연구에 대한 영국에서의 평가서(Hayter Report)에서도 미국 지역연구의 발전으로부터 배워야 할 3가지 사항 중의 하나로서 ‘현대적 연구에 대한 강조’를 들었다.²²⁾ 그리고 현대에 대한 이러한 강조

20) 이에 관한 이유로서는 다음의 주 41) 참조.

21) 지역연구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지역연구소는 1960년대 후반에 단지 1, 2개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Wood 1968: 403). 지역 연구에서 지역과 분파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후자가 승리함에 따라 지역을 전공으로 한 박사 학위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립된 타협책은 지역 연구자들은 지역적 전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분파적 신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연구에 개입한 분파들은 지역을 전공으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용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CIU 1964: 28, 31). 지역 프로그램에서 석사 학위까지 수여하고 박사 학위는 학과를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현재의 유형이 보편화된 것이다.

22) 다른 두 가지는 대규모의 시도라는 것 및 지역연구소의 조직이었다(Wood 1968: 402) 참조.

는 예컨대 19세기 초기의 선구적 지역 전문가들이 식민지 이전의 역사를 비롯한 과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나²³⁾ 또는 프랑스 아날학파(*Annales*)의 지역연구가 주로 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에서 지역연구가 전적으로 현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원래 학술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이 밀접하게 연관된 상태에서 출발하였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략적으로 유지한다는 정책적이고 실용적 의도에서 지역연구는 근대 역사와 현대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들의 영역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던 것이다.

이 시기 지역연구는 대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외부로부터의 조직적·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조직적 측면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후원자는 사회과학협의회와 인문학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학술 단체들이었다. 특히 사회과학협의회는 일찍이 1946년부터 세계지역연구위원회(Committee on World Area Research)를 조직하여 이 방면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1945년부터 인문학협의회 및 전국연구협의회와의 탐색위원회 단계를 거쳐 설립되었던 이 위원회는 1946년에 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미국 대학들에서 지역연구의 현황에 관한 조사를 후원하였으며(Hall 1947), 지역연구와 훈련에 관한 전국적 차원에 걸친 두 차례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Wagley 1948; Heindel 1950). 또한 지역연구에 관한 비판적 평가의 준비를 장려(Steward 1950)하였는가 하면, 지역연구를 위하여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자원을 위한 조사(Bennett 1951)를 주관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53년에 해체되었다.

이 시기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역시 지역연구의 발전에 촉매적 역할을 하였다. 제2차대전 이후 초기 몇 년 동안 대학에 기반을 둔 지역연구 프로그램은 주로 민간의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시기 지역연구의 주요한 재정적 지원자는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이었다. 일찍이 이들은 1920년대 시카고 대학에 동양연구소를 설립하거나, 1930년대에 미국인문학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세계지역연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차대전 이후 카네기 재단은 지역연구를 대폭적으로 지원하였다. 1948년 하버드대학에 당시로는 최대 규모인 740,000불을 지원하여 러시아연구소(Russian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였던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연방 정부의 지원은 특히 미시간과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 주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들 주의회에서는 사립 대학들과 경쟁하는 주립 대학들의 지역연구를 돋기 위해 재정 지원을 의결하였다(Ward 1975: 33; Lambert 1984: 8; Koppel 1995: 5).

23) 한 연구자는 초창기의 학자들이 당대의 문제들을 소홀히 했던 것은 현재에 대한 연구가 식민 사업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불가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으리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Palat. 1996: 51).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1950년대 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른 어느 시기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전성기를 맞았다.²⁴⁾ 국무성에서 조사한 미국 대학에서 지역연구 현황에 의하면 앞에서 언급한 통합 지역 프로그램은 1954년에 55개에서 10년 후인 1964년에는 무려 146개로 증대되었다(CIU 1964: 31). 1946년에 홀이 보고한 13개, 1951년 벤네트가 조사한 29개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까지를 보면, 보고된 프로그램은 600여개로 증대하였으며, 홀과 벤네트가 정의한 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적 기준을 충족시킨 것은 300개 정도로 늘어났다(Lambert 1984: 8).

이 시기 대학에 기반을 둔 지역연구의 팽창은 지역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의 증대 경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3>에서 보듯이 지역연구에서 박사 학위 수여자의 수는 1948년의 71명에서 1951년의 181명으로 4년 동안에 배 이상으로 증대되었으며 1966년에는 379명으로 또다시 배로 되었다. 배로 되는데 15년 정도가 걸린 셈인데, 그 절반인 7년 정도가 지난 1973년에 이르러 이 수는 또다시 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문 사회과학 전체에서 지역연구 학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초기의 10% 남짓에서 1970년대 전반에는 1/4인 25%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에서 보듯이 지역 연구는 인문·사회과학의 평균적 증가폭을 훨씬 넘는 높은 지속적인 성장 속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 시기 지역연구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미국 대학 사업의 중심으로 부상된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냉전의 영향을 들어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지역연구는 냉전 상황에서 출현하여, 냉전의 종식과 함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당시 세계적 차원에서 조성된 냉전이 지역연구에 미친 영향력은 심대한 것 이었다. 마샬 플랜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결성으로 표현되는 유럽에서의 미국의 대외정책,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공산화와 일본의 전후 복구, 신홍 공업 국가(NICs)로 불리는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등장, 인도를 중심으로 한 비동맹 노선의 출현, 아프리카 신홍 독립 국가들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미소의 경쟁, 1960년대 초반 쿠바에서의 혁명, 남아시아에서 빈발했던 쿠데타들 등과 같이 세계 각 지역의 혼란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에서 지역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이 시기 지역연구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은 따라서 냉전의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

24) 아시아의 경우에 특히 그러했지만 이 시기 지역연구에서 귀국한 평화봉사단원들(Peace Corps), 퇴역한 베트남 참전 병사들 및 반전 운동의 참여자들을 포함하는 젊은 세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대학에서 지역연구 강좌를 신청하고 나중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였다(Koppel 1995: 5-6).

<표 3>

지역연구에서 박사 학위 수여자의 시기별 변화²⁵⁾

연도 구분	인문학 및 사회과학	지역연구		비율(%)
		A	B	
1861-1900	942	122	400	13
1900	84	12		14
1925	183	25		14
1934	332	42		13
1940	508	67		13
1945	211	27		13
1948	510	71		14
1951	1,049	181		17
1960	1,205 *	241		20
1966	1,717	379		22
1973	3,088	781		25
1976	2,728	745		27
1977	2,309	626		27
1980	2,121	569		30

주: *추정치임.

자료: McCaughey 1984: 35, 103-04, 138, 199, 208, 247 및 Lambert 1984: 3에서 재구성.

이었다.

둘째로 이와 관련하여 민간 재단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지역연구는 포드 재단(Ford Foundation)과 떼어어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전폭적인 재정

25) 이 표에서 B는 전국 대학을 망라한 전체 수치이며, A의 대학들은 표본치이다. 1861-1900년의 표본은 예일, 시카고, 콜롬비아, 하바드, 존스 홉킨스, 코넬의 6개 대학이고, 1900-1934년의 표본은 위의 표본에서 존스 홉킨스와 코넬 대신 버클리와 워스콘신을 포함한 것이며, 1940년 이후는 위의 두 표본에서 존스 홉킨스가 빠지고 대신 미시간, 스텐포드, 피츠버그, 텍사스, 인디애나, UCLA, 워싱턴(시애틀), 미시간주립대, 시라큐스 대학을 포함한 수치이다.

지원을 받았다.²⁶⁾ 1952년 카네기 재단에 이어 지역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아래 포드 재단은 이듬해인 1953년 설립된 국제훈련조사프로그램(ITR: International Training and Research Program)²⁷⁾을 통하여 1967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였다. 포드재단이 대학에 중여한 연간 재정 지원의 수준은 1950년대 후반에 1억 달러, 1960년대 초반에는 2억 달러, 그리고 중반에는 3억 달러를 넘어 섰으며, 1960년 까지 포드재단이 소비한 중여(13억 달러)의 거의 절반인 6억 4,600만 달러가 대학으로 투자되었다. 이 중에서 지역연구에는 1952년부터 1967년을 전후한 15년 동안에 대략 2 억 5천만 달러-2억 7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원하였다(Lambert 1984: 8-9; McCaughey 1984: 170-71, 195). 이 시기의 지역연구가 다른 어느 시기에 비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포드재단의 재정적 후원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이다.

지역연구를 포드재단이 지원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다. 첫째, 대학 교육과 관련된 재단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공립보다는 사립 대학을 선호한다는 것, 둘째, 크고 부유한 대학보다는 작고 가난한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연구가 낙후된 지역에 재단의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McCaughey 1984: 185-87). 이미 언급했듯이 지역연구가 지역적, 분과적, 그리고 대학별로 집중되었던 초기의 경향에서 벗어나서 점차 골고루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 왔던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고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²⁸⁾

26) 1950년에 포드재단은 특별 추진 사업을 위한 보고서(Gaither Report)를 발표하였다. 1) 평화의 확립, 2) 민주주의의 공고화, 3) 경제적 강화, 4) 민주 사회에서의 교육, 5) 개인의 행동과 인간 관계라는 5개의 프로그램 영역을 제시한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포드재단의 책임은 지구적 범위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주의적 전망이었는데, 세계 지역연구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대학의 지원에 대한 포드재단의 ‘거대한 박애적 전망’의 배경에는 재단의 과잉 자본축적으로 인한 잉여 재원을 흡수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대학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으로는 McCaughey 1984: 142-45, 167-71 참조.

27) 1952년 포드재단은 카네기 재단이 지원하고 사회과학협의회가 관리해오던 외국연구자지원 프로그램(Foreign Studies and Research Fellowship Program)의 재정적·행정적 책임을 떠맡기로 하고 재단 내부에 외국연구프로그램(Foreign Study and Research Program)을 설립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의 행정적 업무를 관장하는 해외 여행 및 연구국(Board of Overseas Travel and Research)을 외부에 따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듬해인 1953년에 두 기관을 통합하여 성립된 것이 ITR이었다.

28)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반드시 그대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지역적 고려에서 포드 재단은 중동이나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연구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반면에 동아시아

비록 시기와 규모에서 한정되어 있었지만 연방 정부의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초기 지역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있다 해도 몇몇 대학들에 한정되었으며 그나마 미약한 수준에 있었다. 1946년 풀브라이트(Fulbright)법이 통과되고 1947년의 트루만 독트린 등에서도 광범위한 해외 기술 지원에 대한 고려가 있었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아직은 시기상조였던 것이다.²⁹⁾ 대학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의회에서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가용한 연방 자금은 물리학이나 생물학 등을 지원하는 데 거의 전적으로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기부금을 가진 사립 대학들에서 조차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상대적 입지는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1957년 하반기에 상황을 전도시킨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소련에서 ‘예기치 않게’ 쏘아 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Sputnik)이었다. 냉전 체제하에서 미소 양국의 첨예한 대립을 배경으로 이 사건은 미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듬해인 1958년에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 법안의 제6조(Title VI)에 의거하여 다음해 1959년부터 지역연구에 대한 직접적 정부 보조가 시작되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³⁰⁾ 사실 지역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민간 재단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원 규모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지역연구의 주요 재원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³¹⁾ 또한 비록 필요한 자금 지원을

와 남미는 가장 연구가 진전된 지역으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후자의 지역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지역들은 지역연구 전체에 너무나 중심적이어서 재단의 프로그램에 의해 결코 경시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역에 관한 이러한 결정은 예컨대 하바드나 콜롬비아와 같은 대학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29) 1951년 한국전쟁의 한창인 가운데 사회과학협의회와 인문학협의회가 정부의 부담으로 대학에서 극동 전문가들을 1,000여명 훈련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공동으로 제안하였으나 의회의 인준을 얻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McCaughay 1984: 132).

30) 미국 교육에서 외국어와 지역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연방적 조치로서 제정된 이 법안은 1965년에 고등교육법안(Higher Education Act of 1965)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안에 의해 국가자원연구(National Resource Centers), 외국 언어 및 지역연구 지원(Foreign Language and Area Studies Fellowships), 국제기업교육연구(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Centers) 등 10여 개의 미국 내 주요 프로그램들이 지원을 받았다(Clowsy 1981 및 Koppel 1995: 6).

31) 정부가 지원하는 제6조의 예산액은 1960년 연간 500,000 달러 미만에서 1965년에는 13,000,000 달러로 증대되었다. EWA 1965: xvi 및 McCaughey 1984: 195 참조.

확보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1967년에 국제교육법안(International Education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이 시기 지역연구는 연방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진행되었던 이른 바 미국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이다. 1950년대에 미국 대학은 등록률의 하락으로³²⁾ 심각한 재정난을 경험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대학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교수진의 낮은 봉급 수준은 집중적이고 동정적인 공공의 주목을 받았다.³³⁾ 이미 언급한 소련에서 인공 위성의 발사는 여기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안 제정 이후에 재단들과 개인들, 또는 동창회로부터의 기부, 증여 수입, 연방과 국가 보조 등에 의한 점증하는 수입으로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거대한 세대가 1960년을 전후하여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미국에서 대학은 갑자기 주도적인 성장 산업이 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성장을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역사에서 가장 확고한 재정적 기반 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50년 전인 1900년대에 있었던 대학의 팽창에 비견될 수 있는 이 시기 대학의 급속한 성장을 제2차 학술 혁명으로 일컬을 수 있다면, ‘규모와 활력에서 혁명적 변화’(Pye 1975: 4-5)로서의 전반적인 대학의 팽창은 지역연구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제1차 학술 혁명기에 미국 경제학회, 정치학회, 사회학회, 인류학회 등의 분과 지향적 학회들이 결성되었던 것과 비슷하게 제2차 학술 혁명은 지역에 기반을 둔 다수의 학술 단체들을 낳았다. 미국에서 가장 주요한 6개의 지역 지향적 전문 학회 중에서 1842년에 조직된 미국동양학회를 제외한 러시아와 동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동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학회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직된 것이다.³⁴⁾ 이처럼

32) 전국적으로 500,000명의 학사 학위가 수여되었던 1950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1956년에는 마침내 375,000명이 되었으며, 1962년에 이르러 비로소 1950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보다는 덜하다고 해도 대학원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였는데 예컨대 1951년에 수여된 석사 학위자의 수(65,000여명)는 1958년에 이르기까지 개신되지 못하였다(McCaughey 1984: 172-73).

33) 1957년 7월 고등교육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Education Beyond the High School)는 우수 교원들이 점차 부족하게 되는 협상을 경고하면서 10년 이내에 급여 수준이 2배로 되어야 한다고 권장하였다(McCaughey 1984: 176).

34) 1948년에 슬라브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lavic Studies)가 창설되었고, 1941년에 조직되었던 극동학회(Far Eastern Association)는 1957년에 아시아학회

5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 대학 교육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분과와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 학회들이 각각 성립되었던 사실은 흥미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와 민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거듭함으로써 지역연구는 이제 단순히 대학의 어느 특정 연구소에 관련되는 것만이 아닌 전체 대학과 연관된 사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다양한 지역연구 활동들을 총체적 제도로서 대학이라는 맥락 안에서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실제로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 대학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었다.³⁵⁾ 전체 대학적 접근 방식에 따라 대학들은 이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고 연관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 무대에서 ‘증대되는 (대학의)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 사이의 협동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다양한 조직 유형들이 고안되었다. 예컨대 큰 대학들은 가까이에 있는 작은 규모의 대학들을 묶어 국제 활동을 위한 컨소시움을 구성하기도 하고, 혹은 규모가 작은 대학들이 연합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국제적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체를 결성하기도 하였다(EWA 1965: xvi).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남캘리포니아 대학 연합(Southern California Consortium o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Studies: SOCCIS)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70년에 만들어진 이 프로그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로 개칭하였다. 또한 1956년에 아프리카 학회(African Studies Association), 1966년에는 라틴아메리카학회(Latin American Association)와 중동학회(Middle East Studies Association)가 각각 설립(Lambert 1973: 10)되었다. 이들 중에서 1948년에 창립된 슬라브 학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드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것이다.

35) 이러한 주장은 1960년 말 포드재단이 출판한 모릴보고서(Morrill Committee Report)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959년 7월 대학과 재단, 기업과 정부를 대표하는 집단들에 의해 구성되었던 대학과 세계 정세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University and World Affairs)에서 공식 출간한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학들이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지금까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세계 무대에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더욱 크나큰 역할’을 떠맡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대학들의 국제적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 시도로서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제안들을 담고 있었는데, 예컨대 1963년 설립된 교육과 세계정세 (Education and World Affairs)는 그러한 권고 사항들 중의 하나였다. 이 조직은 1940년대 후반 사회과학협의회에 의해 조직되었던 세계지역연구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1966년에 해체되었다(EWA 1965: xv-xvi; McCaughey 1984: 190-91).

램은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14개의 종합대학과 4년제 단과대학 및 초급대학(community college)들의 참가에 의해 결성되었다(Koppel 1995: 78).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일련의 정부 정책들과 상승 작용을 하면서³⁶⁾ 대학들의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국제무대에서 미국 대학들의 주도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지역연구가 성장한 주요한 추진력은 국제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대학 교육의 지적인 참여에 있었던 것이다.

V. 지역연구의 ‘위기’와 새로운 정향: 1970년대 이후

지역연구에서 주요한 전환점은 일찍이 1967년에 왔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해부터 포드 재단은 지역연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중단하였으며³⁷⁾ 국제교육법은 재정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통과되었다. 이와 아울러 국가방위교육법 제6조에 의한 지원이 계속될지의 여부에 대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시작된 이른바 오일 쇼크와 불경기는 가장 직접적인 불확실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에 몰렸으며 재단이나 정부 기관들도 그러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연구에 필요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미래에 그것이 증대될 가능성은 비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현실에 의해 배양된 병폐는 정치적 좌절감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36) 1950년대에 외국에서의 지역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 특히 제3세계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 원조 기관으로 FOA(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나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등이 있었다.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1961년 발전과 안보에 관한 국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Security Act)의 제정을 계기로 이러한 기능은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통합되었다(EWA 1965: xiv-xvii).

37) 포드재단은 1966년의 결정 이후에도 특별 지원(special grant)의 형태로 1969년 초에 지역연구를 위하여 26개 대학에 9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1970년대에도 재단의 국제 분과 (International Division of the Ford Foundation)를 통하여 지역연구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계속하였다(EWA, 1965: xvi 및 McCaughey 1984: 241). 다른 재단들의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이 시기 이후 민간 재단들은 특정 프로젝트보다는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과 같이 조직에 대한 지원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구자들이 제기한 주제에 대한 연구보다는 재단 자체가 설정한 프로그램의 관심과 일치하는 주제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된다(Lambert 1984: 174). 후술하듯이 연방 정부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연구 결과물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좌절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개입이었다. 지역연구가 비록 초기부터 정책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실제 지역연구에 관여하였던 연구자들, 즉 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 그리고 교사들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통하여 외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는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역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이러한 믿음을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 개입의 본질을 통하여 이들은 자신의 연구들이 정부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옳던 그르던 지역 연구에 관여하는 많은 미국의 대학인들은 개인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의 열망의 일치로부터 나오는 특수한 종류의 자신감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국가적 정당성을 찾기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Rosenau 1973: 16-17).

세 번째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대한 실패는 다른 많은 점들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 쏟아 부었던 막대한 원조는 이들 제3세계 국가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 설령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회의 민중들이 바라는 방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른바 근대화 이론의 파탄으로³⁸⁾ 미국은 해제모니 국가로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였다. 이와 아울러 해외 교육 활동에서 중앙정보국(CIA)의 역할이 폭로된 것이나 캠롯(Camelot) 사건 등의 발발은 해외 연구의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해외 지역연구에서 정부의 개입에 따른 적절한 도덕성과 실천적 쟁점들이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 시기에 찾아 볼 수 있었던 세계적 차원에 걸친 '미국 대학 교육의 지적 참여'에 대한 자신감은 상실되었던 반면에 그에 대한 회의가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이 시기에 들어 와서 실업문제와 인종문제, 주택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는 냉전의 종식과 맞물리면서 시민들이나 흑인들, 도시 빈민, 학생들, 여성 등의 주도에 의한 거센 저항운동의 분출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학은 마치 1920-30년대에 그려했듯이 해외의 다른 지역보다는 국내의 당면 현안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저항과 위기의 시기에 학문과 과학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요구와 아울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처방과 해결의 압력 앞에서 대학들은 더욱 국내 지향적으로 되어갔다(Lambert 1973: 3). 포드재단이 1966년에 지역

38) 1980년대의 지역연구를 반성·전망한 사회과학협의회의 연례보고서(SSRC 1981-82: xiv)에서는 과거 수십년 동안 지역연구에 따라 다녔던 가장 주요한 7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로서 '근대화론의 패러다임 및 이와 연관된 발전 이론들의 부적합성'을 들고 있다.

연구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배후에도 미국의 도시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나 흑인 권리의 향상 등과 같은 국내 지향적 프로그램을 지원(McCaughey 1984: 240)한다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 작용하였다. 국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지역 연구가 경시되고 소홀히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점증하는 세계적 상호 의존을 배경으로 생태학적 위기와 인종 갈등과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었던 것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들 쟁점들은 기존의 학문 분야의 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해결 방식과 정책 대안들을 요구하였다. 세계적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의 증대와 새로운 쟁점들의 출현은 냉전의 종식과 낡은 쟁점들의 혼란에 의해 수반되었다. 이데올로기와 동서의 대립은 유용한 준거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대신하여 예컨대 제국주의적 지배와 저개발의 문제, 흑백 차별과 여성 차별 등의 구분이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지역연구는 비판에 직면하거나 또는 거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 지역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지역연구의 위기가 자주 거론되었던 것이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지역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도 그것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앞의 〈표 3〉을 보면 박사 학위 수여자의 비율은 198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늘어나서 1980년에는 30%를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물론 절대수에서는 1973년에 절정에 이르러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일반의 감소보다도 더한 것은 아니었다.

분야에 따른 박사 학위 수여자의 시기별 변화를 보인 위의 〈표 4〉를 보더라도 1976년에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이후 상대적으로 하락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학 내의 다른 분야들 일반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급격한 감소는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에 경제학

39) 예를 들면 1979년 외국어와 국제 연구에 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Foreign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1979년 보고서에서 코넬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James A. Perkins는 미국에서 지역연구가 “그것의 수준을 유지하기는커녕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고 요약하였다. 또한 이듬해 1980년에 설립된 외국어 및 국제학에 관한 국가협의회(National Council on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작성한 보고서는 위의 대통령 위원회보다도 더 일관되게 지역연구에서 ‘위기’의 규모와 그 것이 국가 안보에서 지니는 함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1982년 당시 국방 장관이었던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는 국가와 국방성(DOD)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심각한 몰락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대학 교육의 영역으로 수학 및 과학과 함께 언어와 지역연구를 꼽았다(Lambert 1984: 22 및 McCaughey 1984: 243).

(표 4) 영역 및 분과에 따른 박사 학위 수여자의 시기별 변화

연도		1861-1900	1900-1940	1940	1951	1960	1966	1976	1979	1980
구분										
인문학 언어·문학 역사학 기타	87(72)	24(19)	7(10)	28(15)	35(15)	71(19)	141(19)	104(19)	122(21)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8(7)	43(34)	28(42)	54(30)	54(22)	77(20)	150(20)	107(19)	117(20)	
계	101(83)	81(63)	41(61)	89(49)	99(41)	172(45)	358(48)	252(46)	285(48)	
총 계	121(100)	128(100)	67(100)	181(100)	241(100)	379(100)	745(100)	553(100)	594(100)	

주: 1) 1900-1940년의 수치는 1900, 1925, 1934 및 1940년의 수치를 합한 것임.

2) ()안의 수치는 비율(%)임.

자료: McCaughey 1984: 36, 106, 139, 202, 251에서 채구성.

이, 그리고 후반에 정치학이 그에 비견할만한 하락을 보였을 뿐 각 분과들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밖사 학위 수여자의 추이를 지역에 따라 살펴보더라도(다음의 〈표 5〉 참조), 러시아와 동구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급격하게 감소하여 20년전인 1960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사실만을 제외한다면 다른 지역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제기되었던 지역연구의 ‘위기’에 관한 언급들은 대부분 그것을 국가 안보와 직결시켜 보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거나 또는 러시아·동구의 경우에서처럼 급격한 축소를 경험하였던 지역이나 분과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제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연구가 위축되고 연구자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학 내의 다른 부문에 비해서 더욱 그러한 것도 아니었으며, 생존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 또한 아니었다. 결국 1970년대 지역연구에서 제기된 ‘위기’는 대학 일반이 당면한 동일한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 지역연구가 당면한 어려움을 단순히 대학 전반의 일반적 현상의 하나로 해소시켜 설명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적인 성장의 문제와는 별도로 이 시기 지역연구는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들에 봉착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기존의 연구 방향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연구가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역 연구의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연구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고 또 그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예컨대 1947년 11월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지역연구의 전국 대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지역연구가 지역 내의 모든 현상을 다 연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통제하고, 연구 문제들과 계획들을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Wagley 1948: 15). 수년 뒤에 사회과학협의회에서 발간한 지역연구 보고서도 학제적 연구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teward 1950: 1).

분과들을 통하여 지식의 분할을 극복하고 지역에 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을 확립하려 했던 종전 직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기 사이에 지역연구는 냉전 체제를 배경으로 한 해계모니 권력의 대외 정책 목표들에 종속됨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 시기 풍부한 재정 지원과 계약연구제를 배경으로 당면 국가 정책 목표들에 대한 즉각적인 추구 앞에서 이론

〈표 5〉 지역에 따른 박사 학위 수여자의 시기별 변화

지역	연도	1861-1900	1900-1940	1940	1951	1960	1966	1976	1979	1980
남 미	6 (5)	26 (20)	15 (22)	54 (30)	44 (18)	65 (17)	158 (21)	115 (21)	131 (22)	
리시아·동구	3 (2)	12 (9)	9 (13)	31 (17)	50 (21)	71 (19)	102 (14)	54 (10)	66 (11)	
동 아 시 아	8 (7)	31 (24)	15 (22)	29 (16)	31 (13)	60 (16)	116 (16)	103 (19)	97 (16)	
중 동	68 (56)	25 (20)	13 (19)	24 (13)	28 (12)	40 (11)	91 (12)	86 (16)	80 (13)	
남 아 시 아	21 (17)	12 (9)	7 (10)	7 (4)	49 (20)	58 (15)	115 (15)	81 (15)	80 (13)	
아프리카	4 (3)	2 (2)	0 (0)	3 (2)	14 (6)	31 (8)	82 (11)	65 (12)	63 (11)	
기 타	12 (10)	20 (15)	3 (4)	24 (13)	25 (11)	54 (14)	81 (11)	49 (9)	77 (13)	
총 계	122 (100)	128 (99)	67 (97)	181 (95)	241 (101)	379 (100)	745 (100)	553 (102)	594 (99)	

주: 1) 1900-1940년의 수치는 1900, 1925, 1934 및 1940년의 수치를 합한 것임.

2) ()안의 수치는 비율(%)임.

자료: McCaughey 1984: 37, 105, 140, 200, 250에서 체구성.

적이거나 방법론적 쟁점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시간만 낭비하는 무용한 시도로서 간주되었다. 기존 대학 제도의 학문 분과들파의 타협과 질충을 통하여 지역연구는 분과들에 의거한 미시적 연구로 치달았으며, 이에 따라 지역은 연구 주제라기 보다는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고착되고 말았던 것이다.

각각의 지역이 폐쇄적이고 자기보증적인 연구와 토론의 영역으로 자의적으로 격리됨으로써 지역연구자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한 논쟁이나 이론적 접근들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한 연구자가 적절히 비판했듯이 이는 지역연구의 유용성에 대한 '도구주의적 옹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역 연구자들(areaists)은 자신이 전공으로 하는 지역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 만을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세계 정세가 야기한 여러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연구가 정책 목표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제기한 이론적·인식론적 쟁점들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Palat 1986: 15, 33).

둘째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학 교육에서 지역연구가 차지하는 기반이 점점 좁아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연구에서 분과나 지역에 따른 집중화 경향이 완화되고 골고루 분산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앞의 여러 표들을 통해서 이미 지적해 온 바 있었지만, 또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평준화 추세와는 반대의 경향이 지역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지역연구는 여전히 인문학적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⁴⁰⁾ 사회과학에서도 몇몇 분과들에 의해서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경제학이나 사회학 및 심리학, 또는 법학이나 의학, 공학 등과 같이 공공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응용 및 전문 분야는 여전히 제한적인 참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지역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인류학과 역사학, 언어와 문학, 또는 정치학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들은 연구와 강의 모두에서 고도로 지역 특정적인(area-specific) 분과들로서 대부분의 대학이나 지역연구소에서 지역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이처럼 지역 특정적인 연구의 대다수는 덜 양화적이고, 보다 기술적(descriptive)이며 '부드러운' 쪽의 분과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양화적이고 이론 지향적인 경제학이나 사회학, 또는 응용 분과들에서는 특정 지역을 전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인 편견을 가지거

40) 1960년대 중후반 이후 민간 재단에서 연방 정부로 지역연구의 지원 책임이 옮겨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왜냐하면 지역연구의 결과가 지원 당사자인 해당 연방 기관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함으로써 종단적, 비교적 연구를 주로 하는 사회과학보다는 인문학적 연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Lambert 1984: 175-76).

나. 또는 동일한 분과 내에서도 지역 전공자를 보다 열등한 서열에 놓는 경향조차 있었던 것이다.⁴¹⁾

이에 따라 지역 지향적인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분과 내에서 소수이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조차도 언젠가는 주류 학자들에 의해 대체되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Lambert 1984: 125, 191). 분과와 지역적 접근의 장점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없었던 사정은 지역연구가 미미하였던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정치학이나 인류학에서도 어느 정도는 진실이었다.⁴²⁾ 분과적 편협성을 극복한다는 유력한 대안을 표방하면서 출발하였던 지역연구가 분과와 영역들에서 계속 좁혀지는 경향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연구의 학문적 고립과 기반의 협애성은 단지 대학 내의 분과들 사이, 또는 그 내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역연구가 대학 내 사업의 일부로서 대학 외부의 사회 일반과 맷는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고립 현상은 비단 지역연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학이 중심이 된 미국 학계의 일반적 현상을 지역연구의 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학 내에서 지적 사업의 하나로서 지역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발전 과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미국 대학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밟아 왔듯이 지역연구가 전적으로 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였던 중요한 결과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강의나 학생, 또는 직업인이나 전문인들, 또는 대학 바깥의 대중적 기반을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

41)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도 지역전문가는 대부분의 경우 분과 내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계량경제학 보다는 경제사나 발전경제학, 또는 제도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Lambert 1984: 159-61). 분과 내에서 지역연구가들의 고립과 ‘이동 서열’에 관하여는 여러 문헌들이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연구의 초기부터 지역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한 분과보다는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동료들과의 관계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Hall 1947: 25)하였던 반면에, 지역지향적이 아닌 연구자들은 지역연구에 대하여 부정적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다(Lambert 1973: 2). 또한 지역연구를 통해 일정한 업적을 쌓은 연구자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지역연구가라기 보다는 분과전문가로 불리기를 원했다는 사실(Wood 1968: 405-06)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2) 분과와 지역의 상호 고립과 배제는 각각의 전문 조직체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지역을 기반으로 결성된 학술 조직체들의 성원들의 대부분은 동시에 다양한 분과 조직체들의 성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직의 성원들은 실제로 아무런 제도적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다. 1890-90년대에 조직되었던 분과 조직들에 못지 않게 1950-60년대의 지역 조직들은 학문적 고립의 효과적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McCaughhey 1984: 222-23).

이다. 그리고 이는 1950년대 이후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의 대폭적인 지원에 의한 지역 연구의 활성화가 초래한 —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 부정적 영향들 중의 하나였다. 사업의 변창에 따라 지역연구는 내부적 필요에 대한 봉사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보유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대학 바깥에서의 경력을 통하여 교육받거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막대한 지원의 확보는 스스로를 지지 할 수 있는 다른 청중을 양성할 필요에 둔감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대학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노력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학부 차원에서 강의를 통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도외시하고 연구만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재정적 지원이나 연구 인력의 충원에서 대학 바깥에 덜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지역연구는 앞 시기들에 사회 일반과 맺고 있었던 관계들로부터 상당히 멀어 지게 되었다. 유일한 예외로서 특히 외교 정책과 관련된 정부 관료들을 제외한다면,⁴³⁾ 지역연구에서 비학술적 청중을 위한 대중화는 적합하지 않은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연구가 당면한 곤경은 1980년대 이후의 즉각적인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장기적인 성공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연구가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학술적이고 비전문적인 청중들과의 대화에 더욱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McCaughhey 1984: 254).

마지막으로 지역연구의 구태의연한 접근 방식은 특히 지난 십 년 동안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변화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 한편으로 생산의 초국적(transnational) 통합과 이로 인한 국가의 규제 능력의 한계로 요약되는 지구화의 전반적 추세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적 지배의 종식과 문화적으로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구 문화적 상황이 도래하였다.

후자의 측면은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사이드(Edward Said)의 고전적 연구(Said 1978)에 의해 대표된다. 한 연구자가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로 일컬었던 이 흐름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의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는 — 전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 인문학적 전통에서 출현한 담론으로 문화의 대표성과 정체성(identity)에 관한 논쟁과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문화연구자들은 역사적, 정치적 및 경제적 상호 관련성의 맥락에서 주요한 문화적 차이들을 접합시키는 세계라는 맥락 안에서 지역연구를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문화적 접근은 지역연구가 자신의 지적인 자

43) 대학에서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지역연구의 팽창기와는 다른 사정이 1980년대 이후 전개되었다. 대학에서 한정된 지역연구의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다양한 국제 기구 들이나 은행들, 투자 기업들 및 법률 회사들과 같이 비학술적 영역에 상당수의 지역연구자들이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Koppel 1995: 12, 41).

율성을 정의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또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Koppel 1995: 17, 81).

지역연구는 오리엔탈리즘의 상이한 해석들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이러한 해석들에 대한 복합적 부정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리엔탈리즘적 유산과 결부되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제2차대전 이후 지역연구는 대학들로부터 민간 재단들에 이르는 거대한 제도적 연결망 속에 통합되어 왔으며, 이는 오리엔탈리즘과 그에 대한 비판의 여러 형태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해 온 미국적 형태의 지식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것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에 특징적인 기업의 자금 제공과 국가적 지원 및 대학 관리의 유연적 경영 체계의 결합에 근본적으로 의존 — 그것이 비판하는 정도만큼 정확하게 — 하는 지식의 형태이다(Rafael 1994: 1-2, Koppel 1995: 17-18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회과학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역사사회과학을 통하여 복합적인 지구 문화적 상황에서 서구의 보편주의적 과학 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체계를 건설 하자는 월러스틴의 제안(Wallerstein 1991; 김경일 1995)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근대화나 발전 이론에서처럼 서구적인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가 형성의 유형이 발전도상국들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정은 무력화되었다. 서구에 관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지역연구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분과적 관심의 연장이라고 간주하는 반면에 제3세계의 경제는 이와 분리된 영역으로 다뤄 왔던(Lambert 1984: 146) 서구중심적 사고는 이제 시대착오적이 되었다. 비서구 사회와 민중들의 경험을 기준의 지식과 과학의 개념적 틀 안에서 분명한 형태로 통합하고 재정립하는 과제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과학협의회는 연례보고서에서 1980년대 지역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언급하는 가운데 지역연구를 사로잡아 왔던 7가지 난점들 중의 두 가지로 미국이 연구 대상으로 했던 세계의 각 지역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지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및 이에 따른 제3세계의 학문적 주제에서 토착화(indigenization)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을 들었다.⁴⁴⁾ 이와 더불어 이 보고서는 국경과 문화적 경계들을 초월하면서 넘나드는

44) SSRC 1981-82: xiv 참조. 1980년대 사회과학협의회와 인문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11개의 세계지역연구위원회가 상당수의 비서구 학자들을 포함하였던 것(Szanton 1982: 60)도 30여년 전인 2차대전 직후에 구성되었던 세계지역연구위원회의 성원들이 모두 미국내 대학들의 학자들로만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

지구적 쟁점들(global issues)⁴⁵⁾을 위해서는 국지적이고 특정 장소 지향적인 지식과 세계 각 지역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의존성을 결합할 수 있고, 분리된 각각의 지역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연구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지역연구가 새로이 출현하는 지구적 쟁점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많은 대학들과 연구소들은 독립적 지역연구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치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점차 축소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심화되고 있는 재정 압박을 배경으로 연방 차원에서 지역연구의 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와 환경, 에너지, 인구, 건강 등과 같은 국가나 지역적 맥락에서는 제기될 수 없는 지구적 쟁점들의 맥락으로 관심의 축이 옮아감에 따라 연방 정부가 지역연구 전략을 재검토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민간 재단들도 지역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역연구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대신, 변화하는 지구적 현실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⁴⁶⁾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한 1994년 초반 멜런 재단(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결정이 이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적 환경 전략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민주화와 경제 개혁, 또는 성관계(gender relation) 등과 같이 현재의 지구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초분과적(transdisciplinary)·초지역적(transregional) 위원회들과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조직되고 있는 것(Koppel 1995: 43-44)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과학협의회는 여러 위원회들의 조직을 통하여 국제 문제에 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⁴⁷⁾ 지구 문

라도 학문의 국제화 추세 안에서 이들 비서구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45)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과 금융자본의 초국적 흐름,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 및 과학 및 기술 문화들의 확산, 테러리즘의 만연과 핵무장의 증대, 전지구적 경제 질서의 번호와 지속적인 국제 안보 문제, 평화 운동과 핵동결운동(SSRC 1981-82: xvii).
- 46) 민족주의와 민족 동일성의 형성, 민족적·종교적 경쟁 세력들의 대두, 새로운 형태의 민주화의 출현, 분쟁 해결(또는 악화)에서 폭력의 역할, 전통과 근본주의와 탈세속화를 강조하는 반운동들(countermovements)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서구의 경제적 가치들의 확산 (Heginbotham 1994: 36-37) 등이다.
- 47) 1990년대 이래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조직된 위원회로는 국제 평화와 안보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지구환경변화연구위원회(Committee for Research 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및 문화와 보건 및 인간발전위원회(Committee on Culture,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비서구지역을 포함한 지구적 범위에서

화적 지식의 확장이나 지역들 사이에서 분석 범위의 확대, 또는 초국적 현상에 대한 탐구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SSRC 1993-94). 사회과학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11개의 합동지역연구위원회(Joint Area Studies Committees)를 후원하고 있는 인문학협의회는 이 위원회들을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연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통달한 비교적이고 초민족적(transnational) 연구를 진행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ACLS 1994: 5). 이처럼 종래 지역연구가 추진해 온 장기간에 걸친 영역과 계획들이 지구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화들로 인해 더이상 적절하게 수행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연구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시각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VII. 맺음말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1940년대 제2차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지역연구는 무엇보다 먼저 대학을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그것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 분과들의 협동과 통합을 장려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과학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와 역사, 문학 및 지리 등과 같이 몇몇 한정된 인문학 분과들에서 출발하였던 지역연구는 점차 그 기반을 다양한 분과들로 확대하면서 특히 사회과학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세계의 여러 지역들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다. 초기 전시 목적을 위한 전략적 필요에서 지역적 편향성을 보였던 지역연구는 1950년대 이후 본격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면서 점차로 그 대상 영역을 다양화하고 또 확장하여 갔다.

1950년대 초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지역연구는 전성기를 맞았다. 이 시기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강의나 훈련보다는 연구 쪽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그것의 조직적 형식은 단순한 위원회로부터 완전한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였다.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였지만 지역연구의 주요한 조직적·재정적 지원자는 대학 외부의 연구협의회들이나 민간 재단, 또는 연방 정부 등이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관한 실제적 연구들을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각 대학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대규모 지역연구의 조직과 활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역연구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만일 미국의 지역연구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전범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 학자들의 참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과 함께 물리학이나 생물학, 공학, 물리지리학 등의 자연과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SSRC 1993-94: 13).

점에서 그러할까? 나아가서 그것은 예컨대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또는 호주나 인도, 싱가포르 등의 지역연구와는 어떠한 점에서 다를까? 이들 지역에서 지역연구의 실태나 현황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상황에서 그것은 선부른 시도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또한 한국에서 지역연구의 정립을 위하여는 지역연구를 대표한다고 말해지는 미국의 사례를 명확하게 특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는 서론에서 제기한 지역연구의 동기와 목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연구가 제2차대전기에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었다. 종전 이후 지역연구는 전시체제의 직접적 요구로부터는 벗어 났지만, 곧이어 조성된 냉전 체제에서 한 극을 담당하였던 해제모니 국가로서 지역연구의 효용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전시체제가 아니더라도 세계 각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할 정치적 필요와 자국 기업의 진출과 시장의 개척을 위한 경제적 요구, 그리고 특히 ‘분쟁’ 지역에서 그려했지만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군사적 임무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들에서 지역연구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수요는 오히려 증대되었던 것이다.

냉전이 실제로 가시화된 전후 시기를 거쳐 동구권의 물량과 소연방의 해체를 계기로 그것이 해소되었던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이러한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강력한 정책적 지향을 추구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지역연구는 세계 정세나 정치적 국면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미소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던 1950년대-1960년대 전반에 지역연구가 급속한 성장을 하였던 것이나 1960년대 이후 조성된 이른바 해빙 무드에서 지역연구에 대한 포드재단의 지원의 중단, 그리고 이어서 1970년대 불경기의 내습과 국내 문제의 심각화 등에 따라 지역연구가 담보 상태를 보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냉전 체제의 해소와 국제화·‘지구화’의 물결 앞에서 지역연구가 재정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적 지향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론적 관심을 전혀 배제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지역연구에서 정책적 지향과 이론적 관심이 일정한 길항관계에 따라 서로서로를 밀어 내었던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예컨대 2차대전이나 베트남 전쟁기에는 정책 중심적 연구들이 압도하였으며, 반대로 그러한 요구가 적었던 시기들에는 상대적으로 이론적 관심들이 우세하였다던 것이다. 어느 관점이 우세하느냐 하는 것은 분파에 따라서도 달랐다. 예컨대 비록 그것의 일부만이 지역연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정치학이나 경제학은 정책적 지향이 강하였던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인류학이나 인문학 분과들은 상대적으로 이론적 측면에 더 관심을 보였다.

지역연구가 전후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기반을 대학에 두었다는 사실은 누차 지적한 바 있거니와, 전반적으로 보아 그것은 삶건 좋건 대학에서 주류적 이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예컨대 그것은 이 시기 미국 사회과학을 지배하였던 근대화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점차로 기존 학문 분과들로 통합되었다. 주류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공간적 측면에서 그동안 배제하여 왔던 비서구지역을 자신의 이론틀 내로 포섭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것이 물론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주도권을 가진 것은 지역연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사회과학의 이론틀로 적응해 갔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미국의 지역연구가 사회과학적 지향이 강하다는 일반적 평가도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다른 각도에서 파악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지향이 강한 지역연구는 사실상 이미 사회과학의 해계모니에 흡수되어 버리고, 원래의 미에서의 지역연구는 여전히 지역 특정적인 몇몇 분과들을 중심으로 협약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역연구에서 정책적 지향이 관철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은 그것의 발전에서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실제적인 정책 목표들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 재단으로부터의 풍부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편의들을 보장받음으로써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면 목표들에 지역연구가 봉사하였던 것은 거꾸로 지역연구에 대한 학문외적 수요라는 요인이 작용하였다. 지역연구의 이러한 성격은 그것이 자라 나온 미국의 지식과 학문이 가지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대한 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것은 국가나 기업이 당면한 정책 목표들에 종속되면서 실제적 적용과 정책적 함의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대신에 이론이나 방법론적 쟁점들에는 무관심하였다. 그 결과 종전 직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던 지역에 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 시각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좌절되었으며, 분과로서 지역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또한 상실되고 말았다. 기존 분과들과 타협하고 절충한 결과 지역연구는 사실상 일정 지역 내의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몇몇 국가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은 연구의 주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소재적인 차원에서 파악되고 있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른바 지구화와 초국적(transnational)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역연구는 또다른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기라고 한 것은 이미 밀했듯이 지역 연구의 구태의연한 접근방식을 통해서는 지구화로 대표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변화들을 더이상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반대로 기회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국경과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지구적 쟁점들이나 주제들로 관심의 축이 옮아 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온다. 지구적 주제들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지구화의 여러 측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지적 지역에서 형성되고 굴절되고 변형되며 또

재정의되는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지역연구의 본령이 국지적 지식(local knowledge)을 추구해 온 데 있다고 한다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연구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김경일

1995 「근대 과학의 ‘보편주의’ 와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월러스틴의 역사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제89집(가을호), 359-83.

加藤普章 編

1992 『入門現代地域研究-國際社會をどう読み取るか』, 東京: 昭和堂.

鈴木一郎

1990 『地域研究入門-異文化理解への道』, 東京大學出版會.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1994 *Newsletter*, vol. 4 no. 2 (summer).

Adams McC. and Corinne S. Schelling (eds)

1979 *Corners of a Foreign Field*,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Conferences on American Overseas Advanced Research Centers, New York: Rockefeller Foundation.

Almond, Gabriel A.

1992 "The Political Culture of Foreign Area Research: Methodological Reflections," In Richard J. Samuels and Myron Weiner (eds.), *The Political Culture of Foreign Area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Brassey's, Inc, 199-214.

Axelrod, Joseph and Donald N. Bigelow

1961 *Inventory of NDEA Title VI Language and Area Center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f Education.

1962 *Resources for Language and Area Studie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f Education.

Bennett, Wendell C.

1951 *Area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ies*. New York: SSRC.

Berryman, Sue E. et. al.

1979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 Specialists: the Marketplace and*

- National Policy, Santa Monica: Rand.
- Bigelow, Donald N. and Lyman H. Legters
- 1964 *The Non-Western World in Higher Education*, Philadelphia: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 Clowse, Barbara B.
- 1981 *Brainpower for the Cold War: The Sputnik Crisis and the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of 1958*, Westport: Greenwood Press.
- Commission 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1964 *Non-Western Studies in the Liberal Arts College*: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Conant, James B.
- 1947 The College Curriculum, Harvard University, *The President's Report*, 1946.
- Eckstein, Harry
- 1975 "A Critique of Area Studies from a West European Perspective," In Lucian W. Pye (ed.),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Rivals or Partne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17.
- Education and World Affairs
- 1965 *The University Looks Abroad: Approaches to World Affairs at Six American Universities*, New York: Walker and Company.
- Fenton, William Nelson
- 1947 *Area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ies*,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Washington D.C.
- Gibb, Hamilton Alexander Rosskeen
- 1963 *Area Studies Reconsidered*,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Hall, Robert B.
- 1947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amphlet 3.
- Hall, John W.
- 1967 "Beyond Area Studies," In Donald E. Thackrey (ed.), *Research: Definitions and Reflection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48-66.
- Heginbotham, Stanley J.
- 1994 "Rethinking International Scholarship: The Challenge of Transition from the Cold War Era," *Items* vol. 48 no. 2/3, 33-40.

Heindel, Richard Heathcote

- 1950 *The Present Position of Foreign Area Studies in the US: A Post-conference Report.* NY: SSRC.

Hyneman, Charles S.

- 1945 "The Wartime Area and Language Courses," *American Association University Professors Bulletin*, vol. 31 no. 3 (Autumn), 434-447.

Jelavich, Charles (ed.)

- 1969 *Language and Area Studies: East Central and Southeastern Europe A Surve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oppel, Bruce M.

- 199 *Refugees or Settlers?: Area Studies, Development Studies, and the Future of Asian Studies*, Hawaii: East-West Center (Occasional Papers no. 1).

Lambert, Richard D.

- 1971 "Patterns of Funding of Language and Area Stud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0 (February), 399-412.

- 1973 *Language and Area Studies Review*, Monograph 17 of the American Academy and Political Social Science, Philadelphia.

- 1984 *Beyond Growth: the Next Stage in Language and Area Studie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Matthew, Robert John

- 1947 *Language and Area Studies in the Armed Services: Their Future Significance*,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McCaughey, Robert A.

- 1984 *International Studies and Academic Enterprise: A Chapter in the Enclosure of American Learning*, NY: Colombia University Press.

McDonnell, Lorraine M., Cathleen Stasz and Rodger Madison

- 1983 *Federal Support for Training Foreign Language and Area Specialists: The Education and Careers of FLAS Fellowship Recipients*.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Murdock, George Peter

- 1950 "The Conceptual Basis of Area Research," *World Politics*, vol. II no. 4 (July), 571-578.

National Council of Area Studies Associations

1991 *Prospects for Faculty in Area Studies: A Report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Area Studies Associations*, Stanford: American Associ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Slavic Studies.

Palat, Ravi Arvind

1996 *Fragmented Visions: Excavating the Future of Area Studies in a Post-American World* (forthcoming).

Parker, Peter

1986 *Speaking for the Future: A Review of the Requirements of Diplomacy and Commerce for Asian and African Languages and Area Studies*, London: University Grants Committee.

Perkins, James A.

1979 *Strength through Wisdom: A Critique of U.S. Capability*, A Report to the President from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

Prewitt, Kenneth

1981-82 "Area Studies in the 1980s," *Annual Report* (SSRC), xiii-xxiv.

Pye, Lucian W.

1975 "The Confrontation between Discipline and Area Studies." In Lucian W. Pye (ed.),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Rivals or Partne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3-22.

Rafael, Vicente L.

1994 "The Cultures of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Paper prepared for Conference on Internationalizing Cultural Studies, 12-16 December, East-West Center, Honolulu.

Rosenau, James N.

1973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Problems, Priorities and Prospects in the United States*, Beverly Hills: Sage.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Samuels, Richard J. and Myron Weiner

1992 *The Political Culture of Foreign Area and International Studies: Essays in Honor of Lucian W. Pye*, New York: Brassey's.

Schwartz, Benjamin I.

- 1980 "Presidential Address: Area Studies as a Critical Disciplin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0 no. 1 (November), 15-25.
- Shils, Edward
- 1976 "The Order of Learning in the United States: The Ascendancy of the University." In Alexandra Oleson and John Voss (eds.),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Modern America, 1860-192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1981-1982 *Annual Report*, New York: SSRC.
- 1993-1994 *Annual Report*, New York: SSRC.
- Steward, Julian H.
- 1950 *Area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Bulletin 63.
- Sutton, Francis X.
- 1982 "Rationality, Development, and Scholarship," *Items*, vol. 36 no. 4, 49-57.
- Szanton, David L.
- 1982 "The Joint Area Committees of the Two Councils," *Items*, vol. 36 no. 4, 58-65.
- Thompson, John M.
- 1972 "Foreign Area Fellowship Program to Merge with Other Area Programs of 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tems*, vol. 26, no. 4, 41- 44.
- Wagley, Charles
- 1948 *Area Research and Training: A Conference Report on the Study of World Areas*.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amphlet 6.
- Wallerstein, Immanuel
- 1991 *Unthinking Social Science: the Limits of Nineteenth-Century Paradigms*. Cambridge: Polity Press(성백용 역,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작과비평社).
- Ward, Robert E.
- 1975 "Culture and Comparative Study of Politics." In Lucian W. Pye (ed),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Rivals or Partne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3-47.
- Ward, Robert E. and Bryce Wood
- 1974 "Foreign Area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tems*, vol. 28,

no. 4, 53-58.

Wood, Bryce

1968 *Area Studies*.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 NY: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401-407.

The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Keong-il Kim

Area Studies, usually understood as the studies on the histories, languages and cultures of the various parts of the world, have developed with unprecedented scale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Being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the social sciences, it has been the significant part of their history. The history of the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can be distinguished as follows. (1) the pre-history started from the 1800s, spanning to the 1900s approximately, (2) the formative years reaching to the circa. 1941 when the United States had participated the War, (3) the period of growth lasted for till the circa. 1973, and (4) the recent re-orientation period.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originated from the strategic motive of the efficient war mobilization during the War. After the end of the war, it tended to orient the substantial needs of meet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demands on the every part of the worl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ld War. At the same time it was not insensitive to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though differed by time and disciplines. As the main arena of the Area Studies has largely been the universities, it could not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main currents social sciences, to which it has obliged to adapt in one way or another.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War,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had tried to establish the integrated and holistic approach, which soon subsumed under the instrumentalism as it was subjugated to the imminent policy objectives of the State and the enterprises. As a result, the 'area' in the Area Studies came to be understood as the mere object, not the subject matter of it. The coming of the era of

the so-called globalization and the transnational have threatened the very basis of the Area Studies, for it has failed to supply the relevant explanations of them. The recent changes, however, become the source of the renovated possibility at the same time, for it has been the Area Studies that has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김경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교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Tel. : 0432-709-7563, 02-931-4275